

세례를 못 받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Q) 믿은 지 1년 조금 남은 초신자입니다. 제 남편은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작년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살아 있는 동안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방하다가 죽기 몇 개월 전에 어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세례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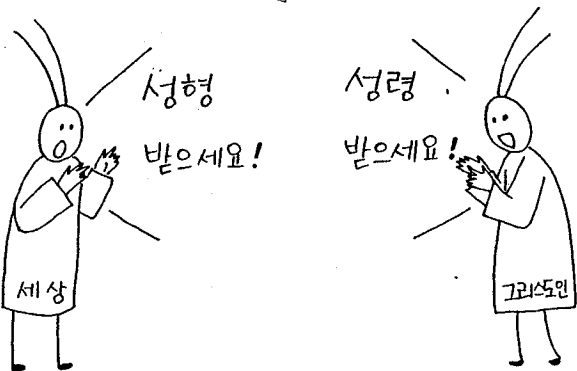
A) 예.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죄사함의 외적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입니다(마태 28:19-20). 그렇다고 성도님의 남편처럼 세례를 못 받고 하늘 나라로 가셨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강도도 십자가상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누가 23:42-43).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엡 2:8-9).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종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 있지만 구원은 믿음 하나로 족합니다.

남편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 받아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워지기 원하십니까?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City 한인교회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1권 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 9월12일
☎(64-9)262-3717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교회내규를 내면서

지난주일 교우들께 교회내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면 나름대로 교회내규를 세워 올바른 교회상을 세우겠다는 다짐을 해오다가 처음으로 실행했습니다. 총회 헌법이 있고 여기에 충실히 따르면 될 것을 굳이 교회자체 내규를 정할 필요가 있는냐는 의문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총회 헌법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기에 성경적 진리 안에서 우리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세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되기를 바라는 내규를 세웠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미숙하지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세상 그 어느곳 보다 평안함을 느끼며 거기서 삶에 도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전교우 성경공부와과 기도생활을 통한 영적성숙 둘째는 직분에 대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것이인데,언제부턴가 개인의 명예로 되었는데 이런 서글픈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항존직분자들이(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먼저

*기도(항존직 매주 정기기도회)

*봉사(순번제 교회청소)

*전도(1달 1회 전도지 전도)를 하는 것으로 성도들보다 앞장선 섬김을 실천하는 것

셋째로 사회선교입니다. 우리교회는 교회재정의 30%는 반드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소금과 소금기둥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형체를 없애고 소금기둥은 소금과 똑 같은 성분은 있지만 그런 사명을 하지 않고 그저 기둥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소금기둥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동경해 뒤돌아 본 대가로 얻은 것은 진노의 상징뿐이었습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것으로(건물, 헌금액등)자기만족을 삼을 때 그것은 소금기둥이지 소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교회내규를 정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 일 예 배

오후 1:30

*묵 도
Silence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2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9 (시 23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3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지윤수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 4:12- 17

복 음 송 가
Praising

날마다숨쉬는 순간마다

다 같이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설 교
Sermon

-처 음 설 교 -

김성국 목사

설교후 기도
Prayer

찬 송
Hymn

399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5	서백화	김 효	지윤수	안은주/김성국
12	지윤수	지윤수	한 건	김 효/유혜경
19		김정훈	김 효	안은주/한 건
26		한 건	한 건	김 효/지윤수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교 회 소 식

1. 지난주 구역예배

모임가정	다음모임(24일)
지윤수,김 효 성도	서백화 권사

2. 기도해 주십시오

*School Holiday 기간동안 2주 새벽기도와 등록교우 4회 구원론,성령론 공부를 위한 예배당 사용신청을 했습니다.

*예배 올겐 반주자 위해.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교사

3. 등록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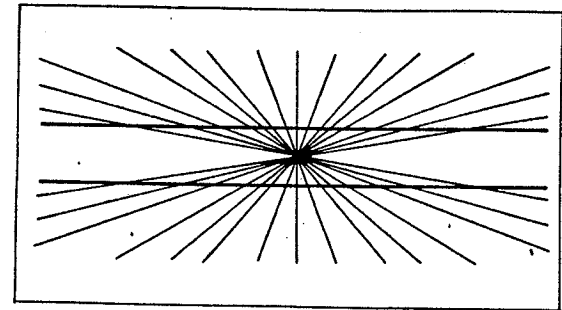
*서백화 권사

11 Nereus Pl. Mairangi. ☎479-1898

4. 방뉴중인 대통령 내외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APEC 외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 9월 방학기간에 가질 신앙캠프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6. 목회서신을 통해 기도 많이하여 주십시오.



그림의 중앙에 가로로 놓여 있는 두 선은 아래 위로 휘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옆으로 세워서 보면 실제로는 직선의 평행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굴절시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 14:6a)-